

제2354호 2019.4.28.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주님의 상처

“나는 …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요한 20,25)

하루는 새벽 미사를 앞두고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주님을 제일 크게 만들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매일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복음의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바람대로 상처를 마주하게 되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상처는 토마스에 게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도 바로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세상의 아픔들을 감싸 안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했던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물과 피)으로 이 세상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상처는 우리에게 마음 아픈 속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지니신 그 상처가 하느님 자비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상처를 품에 안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모여들 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어놓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로 세상의 구원과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의 주님 상처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도 흔하게 십자가들이 걸려 있습니다. 집에도, 성당 곳곳에도.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곳에 상처투성이의 주님이 계십니다.



박종선 갈리스토 신부 | 양덕동본당 보좌

주일 진례

입 당 송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본 기 도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제 1 독 서 사도 5,12-16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제 2 독 서 묵시 1,9-11,12-13,17-1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요한 20,19-31

영 성 체 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청원기도.- 성인 랄프6. 알렐루야

진레와 신앙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 I did my best, it wasn't much...

Even though It all went wrong, I'll stand before the Lord of Song.

With nothing on my tongue but Hallelujah. - 레너드 코언

영화 리틀러니. 마라톤의 최종점, 다른 모두를 이겨낸 승자의 시간, '온리원'에게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The winner takes it all." 순간, 그러나 주인공은 2등으로 들어오며 쓰러진 랄프였습니다. 세상의 환호는 승자를 향했지만, 사람의 시선과 아쉬움의 탄식은 랄프를 향했습니다. 랄프의 마음에는 알렐루야만이 흐릅니다.

마라톤의 승자 배넌은 마라톤 승리를 위해 달렸습니다. 랄프는 자신의 삶과 엄마를 위해 달렸습니다. 아니, 삶이, 그리고 엄마를 위한 마음이, 마라톤이 되었습니다. 어린 14살의 랄프이지만, 지금껏 살아온 삶의 한 땀 한 땀이 모여, 42.195km를 뛰어냈습니다. 인생의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이, 마라톤 길의 오르막 내리막이 되었습니다.

알렐루야는 승리의 노래, 환호의 노래가 아닙니다. 알렐루야는 삶의 노래입니다. 매순간에 하느님 숨결이 깃들어있음을 느끼고, 그 숨결에 내 호흡을 싣는 노래, 그래서 밝은 장조도, 어두운 단조도 모두가 알렐루야입니다. 삶의 어느 부분도 흘려버리지 않을 때, 특히 단조를 소중히 껴안을 때, 알렐루야가 완성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일을 대하는 방식이 모든 일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이다. - 톰 웨이츠

* 큰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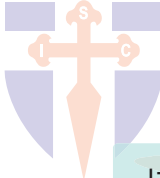
모든 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오직 알렐루야만 읊조리며, 노래의 임금님 앞에 서겠습니다. <상단글 번역>



꾸르실료 도입50주년기념
교구 울뜨레야



2019
천주교 마산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시편46,11)

5. 11.토 10:00~16:00 /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

[제1부] 만남과 울뜨레야 (10:00~12:00)	[제2부] 우정의 시간 (13:00~15:00)	[제3부] 기념 미사 (15:00~16:00)
▶ 50년 회고 및 관련 영상 ▶ 내빈 입장 ▶ 룰 룰 (평신도, 성직자)	▶ 노래 / 율동 ▶ 경품 추첨	▶ 미사집전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신부님들께서는 약식 제의와 흰색 영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묵주기도 봉헌 (9일기도 및 고리기도)

주최 천주교 마산교구 주관 마산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 2019년도 레지오 단원 소양 교육



| 교구 레지아(담당 :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 강동주 세례자요한)에서는 4월 14일 산청 성심원에서 2019년도 단원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212명의 단원이 참석하여,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강의는 송현 로마노(부산교구 가정사목국장) 신부의 “신천지, 정말 이단일까?”와 이제민 에드워드(원로사목자) 신부의 “언제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 장평성당 본당설정 25주년 기념 견진성사



| 장평성당(주임 : 서정범 세례자요한 신부)은 4월 7일 본당 성전에서 본당설정 25주년 기념 감사미사 및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미사에서 28명이 견진성사를 받았으며, 교우들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느님과 많은 은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 성유축성미사 4월 18일 양덕동성당에서 거행



| 성유축성미사가 4월 18일 11시 주교좌양덕동성당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 미사에서는 성유 축성과 더불어, 사제 서품 25주년을 맞이한 최재상, 여인석, 임효진 신부의 축하식이 있었다. 배 주교는 강론에서 은경축을 맞이한 신부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하였고, 모든 사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용서하듯, 사제들도 신자들을 아끼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도록 당부하였다.

● 양덕동성당 ‘은총의샘’ 브레시디움 1,000차 주회



| 양덕동성당(주임 : 김용민 레오나르도 신부) 레지아 직속 양덕 3꾸리아 소속 ‘은총의샘’ 브레시디움(단장 : 김말선 안나)은 3월 27일 본당 교육회관에서 1,000차 기념주회를 실시하였다. 단원은 50~60대 초반의 직장 여성들로, 10명의 행동단원과 5명의 협조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주회를 통해 성모님의 군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비난해요

결혼 15년 차, 두 딸을 둔 직장맘입니다. 10년을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울하게 지낼 때 늘 함께해 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유난히 불안하고 우울하여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학교도 전공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 붙이지 못했으며 정말 무기력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막상 졸업이 다가와도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도 늘 함께해 주며 취업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운 좋게 제가 먼저 취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와 인사를 받으며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대학 때와 달리 직장 생활은 재미있었습니다. 저의 기분 상태는 회복되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직장에서도 꽤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매일 이 유 없이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직장 과 가사로 허덕이고 있지만, 남편은 제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짜증 나는 일은 점점 더 남편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장래 비전이 별로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보장도 없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저를 직장 후배들과 비교하면서 짜증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혼을 선언한 골드미스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제 삶은 구질구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말 한마디 “선배는 왜 그러고 살아요?” 이 말을 곱씹고 곱씹으며 저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쌍하고 남편은 더 불쌍합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 맞지요?

요즘 많이 지치고 우울한 기분이군요. 심 없이 살 아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안식년 같은 제도가 있어서 변화와 휴식을 통해 힐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대를 길게 방황하며 무기력하게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인 일과 사랑 모두 성취하셨군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도 두셨군요. 결혼 15년이면, 시기적으로 서로 익숙하고 편해지면서 살짝 권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재미있는 게 없나 하고 둘러보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장에서 우리 부부의 모습이 초라하고 시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발달 심리의 변화입니다. 후배를 보면서 그들이 그토록 부러운 것은 지금 많이 지치고 기분이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셔야 합니다

이제 남편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을 챙기는 겁니다. 어디에서든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실현과 자기발견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20대에 경험했던 우울 모드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위로자를 찾고 그에게 기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신심 단체에 가입하기, 존경이 가는 성직자와의 만남, 믿음이 가는 의사나 상담자에게 도움 청하기, 주변에서 멘토 찾기, 취미활동, 여행, 독서, 운동 등과 자기 자신 돌보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 자유롭고 재미있어 보이는 골드미스 후배들의 삶보다 먼 훗날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 따라 배울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첫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세요. 그 역시 가족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먼저 당신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만든 아이들의 세상 6”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천공의 성’(天空之城)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10~20년 전 겪었던 세계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투명본부의 질문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부모님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2015년도에는 초등생 19%, 중학생 14%, 고교생 16%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를 것이라 생각되는 초등학생이 부모님 영향력을 믿고 까부는 애들이 많다는 것이겠습니. 그런데 2017년도 조사를 보면 초등생 9%, 중학생 14%, 고교생 19%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의외의 반전입니다. 2년 사이에 초등학생의 수치가 확 줄었습니다. 반면 고등학생은 조금 올랐습니. 당장 입시를 치러야 하고, 입시에 매몰돼 있는 고등학생의 다급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의 힘을 이용해도 좋다.”는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부모가 입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으면 좋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너,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어른의 돈과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타인의 고통과 억울함에 공감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어른들을 돌볼 것입니다.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에 사는 아이들...

부듯한 행복

영혼의 트랙
교구 가톨릭 문인회

이영자 켄마 • 시인

도서관에서 낯선 부부를 만났는데 도시에 살다가 퇴직하고 귀촌하였다 한다. 귀촌 선배(?)인 나는 반가워서 통성명부터 했다. 이삿짐도 풀기 전에 도서관부터 찾아 나선 두 분의 생각이 귀하게 느껴져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 눈에는 부러움이 잔뜩 묻어 있었겠다.

오래전에 인근 도시에서 식당을 차려 달그락거리며 살던 때가 생각난다. 멀고 번잡한 시장통 안에 있는 밥집을 멀다 여기지 않고 찾아 주는 지인이 많았다. 고맙고 또 미안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 하는데 손님 중 한 분이 소설가 황순원 님의 ‘이사와 술집 이야기’ 한 대목을 꺼냈다. 그 작가님은 이사하는데 집이 조건에 딱 맞아도 그 동네에 마음에 쏙 드는 술집이 없으면 이사하기를 아예 단념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좋아서 찾아오는 단골에게 조금도 미안한 생각 말라고 덧붙였다. 중노동에 버금가는 식당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었던 것도 울타리처럼 든든한 그분들의 위안 덕분이지 싶다.

이태 전 봄이다. 마을버스를 탔는데 옆 좌석 노인의 손에 보물처럼 쥐고 있는 새싹을 보았다. 방금 세상에 나온 눈이 부

신 연두빛 평화, 꽃보다 어여쁘오! 염치없이 튀어나온 내 천진한 한마디에 노인은 선뜻 반을 나누어 주어 어느 사이 나도 보물의 주인이 되었다. 일정에 따라 여러 번 차를 바꾸어 타야 했는데 녀석은 목이 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기사님의 물병에서 동냥 물을 얻어 먹이면 다시 생기가 나곤 했다.

저녁 즈음에 집에 도착하여 꽃보다 어여쁜 새싹보물은 종이컵 가마에서 얇전히 내렸다. 어렵게 시집은 이것 때문에 부듯한 행복감에 취한 나를 누가 알아보았을까. 햇살 바른 담장 아래 거처를 정해주고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마저 그늘 지을까 봐 신경 썼다. 행복하게 모닥모닥 번지는 이들 곁에 어울려 지내다 잠자리에 들면 꿈길에도 꽃내가 나고 아침은 마냥 향긋하다. 좋은 향기 혼자 맞보기 아까워 도서관에서 만난 부부에게 분양하려고 꽃삽을 든다. 우리 집과 그 집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 꽃내음 물씬물씬 날아다니게 가교를 놓으리라. 박하모를 숨는다.

기억할 사제

5. 3(금) : 故 이재철 아드리아노 신부



:: 사목 방문 ::

- 4. 30.(화) 양덕동, 월남동
- 5. 2.(목) 봉곡동, 가좌동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

일 정 : 4. 29.(월) 19:30
장 소 : 마산 상남동성당
주 최 : 민족화해위원회
문 의 : 055.26.8201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 시 : 5. 5.(주일) 15:00
장 소 : 남성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수도회

■ 살레시오 젊음의집 상담실 프로그램

효소단식과 함께하는 힐링 피정

일 시 : 4. 27.~28./ 5. 25.~26./ 6. 22.~23.
(첫날 19:00~다음 날 16:00)

대 상 : 몸, 마음, 영적 돌봄에 관심 있는 여성
비 용 : 월 10만 원 (매월 선착순 12명 모집)

엄마랑 누이랑 가족모래놀이

과 정 : 4월부터 7월(4/7, 11:00~12:30 시작)
대 상 : 유치부, 초등부 자녀를 둔 가정
비 용 : 5 만원

※ 개인, 집단, 가족, 부부 상담 수시 접수

※ 복사단, 첫 영성체반, 신심단체 피정 수시 접수
문 의 : 055.255.8295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 3월 중~6월 / 해당 지역 전화 요망

창 원 : 010.4542.0347
마 산 : 010.7315.6059
진 해 : 010.8583.4350
거 제 : 010.3807.1618
거 창 : 010.4630.2838
내서·함안 : 010.5006.6254
통영·고성 : 010.2836.7720
산청·함양 : 010.5911.8792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진주칠암동 : 010.2776.2414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위원회·기관·단체

■ 교구 전례꽃꽂이회 피정

일 시 : 4. 30.(화) 10:00~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개인컵 지참)
문 의 : 담당자 010.9841.8191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 산 : 첫째 주 (화) 10:30 교구청
창 원 : 첫째 주 (목) 20:10 사파동성당
첫째 주 (금) 10:30 대방동성당
진 해 : 첫째 주 (월) 10:00 해군성당
진 주 : 첫째 주 (월) 10:00 하대동
문 의 :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 정 : 매월 첫째 주 (토)
장 소 :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문 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매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분 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 공소회장단협의회

일 시 : 4. 29.(월) 10:30
장 소 : 예구공소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신앙대학

일 시 : 5. 4.(토)~5.(주일)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성소육성회 본당 순회미사

일 시 : 5. 5.(주일)
장 소 : 가좌동성당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교구 내 병원 미사 안내

마 산 : 삼성병원 매주 (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 원 : 파티마병원 매주 (수) 16:00
매 (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 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지하성당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확보 / 전문 교우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6일 (130만원~) < 본당 및 신심단체 환영, 소규모 그룹 연합(상시 모객), 별도일정 협의가능 > 투어찬스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성제) 010-2992-4785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 공항투어 워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table> <tr> <th>품격</th><th>순례</th><th>분도여행사</th><th>www.bundotour.com</th></tr> <tr> <td>5월 24일</td><td>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td><td>13일</td><td>415 만원</td></tr> <tr> <td>6월 12일</td><td>성모발현지 성지순례</td><td>13일</td><td>399 만원</td></tr> <tr> <td>8월 20일</td><td>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td><td>11일</td><td>350 만원</td></tr> <tr> <td>8월 20일</td><td>메주고리예, 발칸, 이탈리아</td><td>12일</td><td>429 만원</td></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6월 12일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13일	399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예,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6월 12일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13일	399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예,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전학원 앞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국내 성지순례 5. 25(토) 공세리성당(아산) + 신리/함덕성당(당진) 참가비 4만원 / www.mrtouring.com 미래고속관광 055.333.6300 대표 우 중 한 리차드 010.3720.0303																					

기 타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 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 부산교구 전국 젊은이 성령축제

일 시 : 5. 6.(월)
장 소 : 주교좌 남천성당
참가비 : 사전 1만원, 현장 5천원
문 의 : 010.6340.2512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후기)

마 감 : 5. 9.(목)
강의 요일 : 월, 목 야간수업
대 상 :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 택 : 50% 장학금(학생 전원)
문 의 : 053.660.5253
010.6563.0409

2019 엠마오 여행 (루카 24,13-35)

▶ 교구 홈페이지 참조

1 말씀풀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에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 20,19-23; 초성 〇스)

2 순례와 미사

마산교구 순교복자 성지 또는 하느님의 종 묘소

3 증언하기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누기

응모내용 : 말씀풀이 5개, 순례지 사진 1장,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눔
응모기간 : 부활 제5주일 ~ 주님 승천 대축일
보내실곳 : samok2@cathms.or.kr 또는 전화(부활 제5주일 공지)
선물발표 : 성령 강림 대축일

명례성지 '소금의 언덕' 조성

성모동산 조성

명례성지 언덕에 '순교자의 어머니' 성모상이 외롭게 계십니다.
올해 성모님의 달 5월이 오기 전에 성모동산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디딤돌 하나, 잔디 1坪 나무 한 그루 등 기금마련에 함께 해 주십시오!

▶ 예상비용 : 5천만원 ▶ 목적계좌 : 농협 351-1067-2746-63

함께하는 길

1. 녹는 소금 후원회원 되기(장기비정기부)
2. 평생기도 회원회원 되기
(연미사, 생미사 1인 100만원 이상)
3. 건축기금 봉헌(250만원/ 0.5坪)
4. 십자가의 길 1차 봉헌(2,000만원)
5. 재능이나 물품 기부하기

문 의 : 055.391.1205(사무실), 010.5877.3217(담당수녀)
후원계좌 : 농협 301-0050-5265-21(예금주: 천주교 마산교구)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레	문 의
교 구	4. 29.(월) 19:00	월남동성당	야벳강 나루터의 축복	김민수(발타살, 삼성기도회)	최용진 신부(이나시오)	010-5072-5612
창원지구	4. 29.(월) 19:00	반 송 성 당	제1강 : 하느님의 사랑	최재상 신부(마티아)	최재상 신부	010-4553-7425
진주지구	4. 29.(월) 19:30	옥 봉 성 당	신앙과 기억	조명래 신부(안드레아)	조명래 신부	010-9677-4224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 12(주일) 13:00~15:30	서울가톨릭대 신학대학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성소국장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5/13 동부유럽 12일 379만원

▶ 5/21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원

▶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 6/ 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Raphael

라파엘여행사

◆ 6/4, 9/17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8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10일 (299만원)

◆ 6/23, 9/1 나가사키 4일 (94만 9천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부활 시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3세기까지 교회 축일엔 부활 주일이 유일했다. 그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축일이었다. 부활 시기는 부활 주일부터 성령강림까지 50일간이다. 은총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시기로 받아들였다. 한자로 50은 오순(五旬)이기에 오순절로 불리기도 한다. 초대교회 부활 축제는 단순했다. 박해시대라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해 넘어갈 때까지 하루만의 전례였다.

4세기 가까워지자 팔일 축제가 등장한다. 부활 주일에서 다음 주일까지 8일간 파스카 전례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이다. 부활 분위기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신영세자에 대한 교육적 의미도 있었다. 그들은 매일 세례 때의 흰옷을 입고 전례에 참여했다. 8일 뒤 주일을 지낸 뒤에야 흰옷을 벗었다. 부활 1주일을 사백주일(捨白主日)이라 칭한 이유다. 사(捨)는 버린다는 뜻이다. 지금은 부활 2주일이라 부르고 사백주일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12세기부터 팔일 축제에 성령강림까지 7주간이 더해졌다. 지금의 부활 시기다.

부활 사건은 히브리인 파스카 축제와 연관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도 파스카 식사였다. 예수님은 축제 전날 돌아가셨고 축제 다음날 부활하셨다. 동방교회는

축제 당일을 부활 축일로 정한다. 토요일이다.

서방교회는 축제 다음날 즉 부활하신 날을 부활 축일로 정했다. 일요일이다. 양측교회는 200년 가까이 서로 다른 날에 부활 축일을 지내고 있었다. 아프리카 출신 빅토 1세 교황(189~199)은 통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한다. 양측 교회는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분열위기를 넘긴 뒤에야 잠정 합의했다. 초기부터 지켜온 관습이기에 서로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130년 뒤 니케아 공의회(325년) 때 서방(로마) 교회 입장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대교회 파스카 예절은 엄격한 단식 뒤에 시작되었다. 단식과 기도가 중심인 단순한 예절이었다. 박해시대가 끝나자 세례성사와 파스카 초(부활초) 예절이 도입되었다. 많은 이들이 개종했고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돌아왔다. 부활 성야는 예비 교우들에게 세례성사가 주어지는 유일한 밤이었다. 오늘날의 예절은 1951년 비오 12세 교황 때 확정되었다. 1970년 새 미사경본에선 성토요일 예절이 파스카 예절의 절정임을 확인했다. 해가 넘어간 후 예식을 시작하고 주일 새벽 전에 마치도록 규정했다.

난민은 난민을 필요로 한다

최근 상영된 영화 ‘가버나움’이 난민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영화평을 읽은 적이 있다. 레바논 여성 감독 나딘 라바키가 만든 ‘가버나움(카파르나움)’은 예수의 기적이 많이 행해진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이고, 영화는 레바논 난민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서는 마을의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생활환경, 담배를 피며 전쟁놀이를 하는 아이들,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 갓 10살을 넘긴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일하고 구걸하는 어린아이들, 감옥에 갇힌 불법체류자의 갓난아이를 난민 어린이가 돌보는 등 충격과 비참의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줘 영화를 본 후 지금까지도 그 영상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 ‘자인’에서부터 아역배우와 연기자들을 실제 레바논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을 캐스팅했다는 점이다. 세계 곳곳에서 빈민과 난민의 발생,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 지양)의 증가,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는 현실들을 볼 때, 부모를 고소한 12세 소년 ‘자인’이 세계를 상대로도 고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핫이슈였던 ‘제주 예멘 난민들’은 지금 어디

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처음 이들이 섬 바깥으로 나가 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을 하여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이후 세 차례 심사를 통해 난민신청자 48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412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클레멘츠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는 예멘 난민 이슈에 대해 “한국 국민도 많이 놀랐지만, 정부도 많이 놀란 것 같다. 다수의 난민이 도착한 것에 대해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들을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혐오 정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난민이 왜 예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 일시 도착한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오해와 편견, 공포는 줄어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난민은 한국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진수 신부도 한 강론에서 “아담에서부터,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도 모두 난민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난민이다. 난민인 우리는 난민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우리가 ‘본질상 난민’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며, 이민의 날인 오늘 모든 이주민, 난민들이 환대받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한다.